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연구

이순미

전주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cological Variables Research on the Effect of Teacher's Happiness in Child Care Center

Soon-Mi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onju Kijeon College

요약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보육교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제주지역 사립 보육교육기관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총 200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80명의 자료를 SPSS 2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유기체 변인 중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차이를 보였다. 즉 35세 이상의 보육교사는 다른 연령에 비해 행복이 높으며, 대졸 이상의 보육교사도 다른 학력에 비해 행복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미시체계 변인 중 결혼여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인 보육교사는 미혼자 보육교사에 비해 행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중간체계 변인 중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았다. 넷째, 외체계 변인 중 근무환경과 직무자체 특성이 좋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복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과 같은 국가적, 행정적 지원으로 현실적인 개선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 보육교사, 행복, 생태체계,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research is analyzing the ecological variables on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The data was collected by the survey of the happiness factors and ecological variables of child care teachers.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of organismic variable, the ag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child care teacher showed discrimination one's happiness. Second, of micro system variable, the marital status is the only thing that affect the happiness. Third, of meso system variable, the teachers who are highly interact on each other such as, child to teacher and parents to teacher are much happier than others. Finally, of the outside system variable, the teachers who are working at the better working environment and good quality of duty are much happier than others.

• **Key Words** : Child care teacher, Happiness, Ecological, Organism, Microsystem, Mesosystem, Exosystem

*Corresponding Author : 이순미(mizzii@naver.com)

Received August 29,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Revised October 11, 2017

Published November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사회구성원의 지지기반인 가정과 관련된 변화들은 영유아 대상인 보육서비스의 변화를 촉구하고,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급격한 저출산 추세,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결혼가정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조기 교육 관심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의 양육을 맡아줄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영유아보육기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첫돌이 지나기 전부터 영유아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보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인 성장을 포함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공간이 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 보육 현장을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은 신장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는 곧바로 유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1]. 인간은 자기 생활의 한 부분이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부분의 생활까지 만족스럽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행복이 증가되면 직무에 대한 만족이 증대되고 직무의 성과도 높아지게 된다는 주장[2]은 보육교사의 행복이 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정영은 등[3]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나은 삶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행복이 개인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유아와 일차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는 중요한 인적자원[4]이고, 보육 현장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5,6]이기에 보육교사의 행복 또한 행복연구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된다[7].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수행되어 왔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769편이 있다[8,9,10,11,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5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19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2편, 행복에 관한 철학적 관점과 이론적 연구는 92편으로 보고되었다[13,14]. 이처럼 국내의 연구들은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

를 이루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행복연구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 연구들[15,16,17,18]과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복관련 연구들[19,20], 보육교사 행복에 관한 연구들[1,19,21,22,7,2,18]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단편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행복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직접 몸담고 생활하는 가정환경, 유아관련기관 환경, 지역사회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치관, 사회제도와 정책, 법률, 복지서비스, 이데올로기, 문화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체적 맥락 하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행복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23].

이런 맥락에서 보육교사가 처한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여러 개별 변인들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생태체계접근법으로써 전체 현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변인들 간의 전후 관계가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상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도 생태체계접근법이 적합[23]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Bronfenbrenner[24]의 생태체계 접근법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보육교사가 처한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보육교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 접근법을 이론적 틀로 하여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4가지 생태체계 변인들을 각각 탐색하고 보육교사의 행복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기체 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차이, 둘째 미시체계 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차이, 셋째 중간체계 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의 영향관계, 넷째 외체계 변인과 보

육교사의 행복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행복에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자료수집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평가기법(self-administration)을 통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제주지역 사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요원이 조사 내용을 설명한 뒤 생태학적 변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는 총 200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80명(90%)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s	N	%	
Age	<25	27	15.0
	26-30	43	23.9
	31-35	33	18.3
	35<	77	42.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7	9.4
	college graduate	126	70.0
	university or more	37	20.6
Religion	Areligious(no)	81	45.0
	Believe(yes)	99	55.0
Marital Status	Unmarried	80	44.4
	Married	100	55.6
Children	Have	92	51.1
	Haven't	88	48.9
Career	Under 3 years	61	33.9
	3-8 years	71	39.4
	More than 8 years	48	26.7
Wage	Under 1,500,000	93	51.7
	1,500,000-2,000,000	69	38.3
	More than 2,500,000	18	10.0
Office hours	Under 8 hours	86	47.8
	More than 8 hours	94	52.2
Number of infants	Under 20 persons	147	81.7
	More than 21 persons	33	18.3
Number of teacher	1 person	72	40.0
	2 persons	79	43.9
	More than 3 persons	29	16.1
TOTAL	180	100	

2.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연령과 학력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미시체계 변인은 가정환경변인과 직장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결혼여부, 자녀유무, 종교유무를 가정환경변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력과 급여, 근무시간, 담당 유아 수, 담당교사 수를 직장환경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중간체계 변인은 유아-교사간 상호작용과 부모-교사간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고, 외체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만족도(근무환경, 직무자체 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유형 측정은 광희경[1]이 정서적인 상호작용, 언어적인 상호작용, 행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여 구성한 내용으로 정서적인 상호작용 10문항(Cronbach's $\alpha = .908$), 언어적인 상호작용 10문항(Cronbach's $\alpha = .872$) 그리고 행동적인 상호작용 10문항(Cronbach's $\alpha = .872$)으로 전체 30문항을 측정하였다.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 측정은 박성혜[25]가 NAEYC에서 제시한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준거 중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영역의 부모·교사 상호작용 7문항을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6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7이었다.

다음으로 외체계 변인 측정을 위해 사용한 유아교사 직무만족도 평가 척도는 이경애[7]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10문항(Cronbach's $\alpha = .715$)과 근무환경 10문항(Cronbach's $\alpha = .759$)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보육교사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Ryff[26]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S)를 바탕으로 한 이경애[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복 척도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확보된 자아수용 8문항(Cronbach's $\alpha = .721$),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Cronbach's $\alpha = .806$), 환경에 대한 통제력 8문항(Cronbach's $\alpha = .701$), 개인적 성장 9문항(Cronbach's $\alpha = .758$), 삶의 목적 7문항(Cronbach's $\alpha = .82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변인을 제외한 중간체계변인, 외체계변인 그리고 행복척도들은 매우그렇지않다(1)에서 매우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기체변인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에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시체계변인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에 차이가 있는가를 독립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기체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행복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35세 이상이 느끼는 행복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대학 졸업이상이 느끼는 행복은 다른 학력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ifference in happiness according to the organism variable

Variables		N	M	SD	F	p
Age	<25	27	3.45	.480	2.698	.047
	26-30	43	3.38	.430		
	31-35	33	3.37	.321		
	35<	77	3.56	.390		
Edu	High School	17	3.28	.775	7.845	.001
	College	126	3.43	.797		
	Univ graduate	37	3.68	.816		
Total		180	3.47	.409		

3.2 미시체계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보육교사의 미시체계 변인에 따라 행복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독립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종교유무와 자녀유무, 경력, 급여, 근무시간, 담당유아 수, 담당교사 수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다만, 결혼여부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즉, 기혼자가 느끼는 행복은 미혼자가 느끼는 행복에 비

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happiness according to the microsystem variable

Variables		N	M	SD	t/F
Religion	Areligious(no)	81	3.47	.427	.128
	Believe(yes)	99	3.46	.396	
Marital Status	Unmarried	80	3.39	.409	2.363*
	Married	100	3.53	.400	
Children	Have	92	3.43	.420	1.182
	Haven't	88	3.50	.395	
Career	Under 3 years	61	3.47	.441	.467
	3-8 years	71	3.43	.409	
	More than 8 years	48	3.51	.369	
Wage	Under 1,500,000	93	3.46	.395	1.196
	1,500,000-2,000,000	69	3.44	.432	
	More than 2,500,000	18	3.61	.385	
Office hours	Under 8 hours	86	3.52	.448	1.794
	More than 8 hours	94	3.41	.364	
Number of infants	Under 20 persons	147	3.46	.406	.624
	More than 21 persons	33	3.51	.424	
Number of teacher	1 person	72	3.45	.430	.485
	2 persons	79	3.46	.384	
	More than 3 persons	29	3.53	.429	
Total		180	3.47	.409	

* $p < .05$

3.3 중간체계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중간체계 변인이 보육교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중간체계 변인의 유아-교사 상호작용($\beta = 4.917$, $p < .01$), 부모-교사 상호작용($\beta = 2.986$, $p < .01$)으로 모두 보육교사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간체계 변인들은 보육교사 행복을 28.0% 설명함에 따라 중간체계 변인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F = 34.397$, $p < .01$).

(Table 4) Happiness relations between mesosystem variable

mesosystem	B	β	t	R^2	F
child-teacher Interaction	.334	.372	4.917**	.280	34.397**
parent-teacher Interaction	.161	.226	2.986**		

* $p < .05$, ** $p < .01$

즉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beta = .372$, $p < .01$), 부모-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beta = .226$, $p < .01$)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행복을 예측하는 중간체계 변인들 중에서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더 많은 영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는 유아-교사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상호작용이 행복에 중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3.4 외체계변인과 보육교사의 행복

외체계 변인이 보육교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외체계 변인의 하위요인 중 근무환경과 직무자체 특성 요인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80.154, p<.01$).

<Table 5> Happiness relations between exosystem variable

exosystem	B	β	t	R^2	F
work environment	.624	.744	16.183**	.671	180.154**
working self	.114	.171	3.717**		

* $p<.05$, ** $p<.01$

이러한 외체계 변인들은 보육교사 행복을 67.1% 설명하고 있어, 외체계 변인 중 근무환경과 직무자체 특성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근무환경이 좋을수록($\beta=.744, p<.01$), 직무자체 특성이 좋을수록($\beta=.171, p<.01$)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행복을 예측하는 외체계 변인들 중에서 근무환경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는 근무환경 요인과 직무자체 특성이 행복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급 변화는 사회와 더불어 여성사회 진출, 가족구조의 변화, 조기 교육 관심 확대라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을 맡아줄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가 차츰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영유아보육기관의 커다란 양적 확대를 가져왔고,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돌봄의 사회화라는 관심과 기대로 영유아보육의 질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보육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높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보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행복은 생활전반의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활의 영역이 행복과 서로 호혜적인 관계이다. 즉 행복과 긍정적인 생활의 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는 양방향의 관련성이 있고[7], 인간은 독립된 유기체가 아닌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는 시각에서 보육교사행복에 미치는 변인 탐구는 보육교사를 둘러싼 환경의 다각적 접근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 접근법을 이론적 틀로 하여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4가지 생태체계 변인들을 각각 탐색하고 보육교사의 행복에 대한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체 변인으로는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 변인을 측정하였고,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종교유무와 자녀유무, 경력, 급여, 근무시간, 담당유아 수, 담당교사 수, 결혼여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중간체계 변인으로는 유아-교사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상호작용을 측정하였고, 외체계 변인으로는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연구문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독립 t검정,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유기체 변인 중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35세 이상의 보육교사는 다른 연령에 비해 행복이 높으며, 대졸 이상의 보육교사도 다른 학력에 비해 행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 학력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교육수준이 행복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관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밝힌 Argyle[27]의 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미시체계 변인 중 결혼여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기혼자인 보육교사는 미혼자 보육교사에 비해 행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간체계 변인 중 유아-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행복의 관련성을 연구한 박영신, 김의철 [28]의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상호적 관

계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영유아를 배려하는 상호작용은 교사에게도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사들이 교사행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행복증진 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1]. 그러므로 현장의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생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들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지지적인 측면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사회성 개발이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과 같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외체계 변인 중 근무환경과 직무자체 특성이 좋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Veenhoven[29]은 행복의 주요요인으로 직무만족을 꼽았으며, 역으로 직무만족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윤성혜[30]는 교사의 직무만족이 행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직무만족도가 스트레스의 대처방식과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 교사생활의 한 부분인 직무에 대한 불만이 전이효과를 가져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은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행복한 교사는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것이며, 직무를 좋아하는 교사는 조직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교사의 행복과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성과도 얻을 수가 있어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31]. 그러므로 영유아보육기관의 양적 확대와 보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써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행복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과 같은 국가적, 행정적 지원으로 현실적인 개선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은 보육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육교사의 연령(35세 이상), 학력(대졸 이상)이 더 행복한 변인으로, 보육교사

의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인 상태가, 유아 상호작용, 부모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느끼는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주지역이라는 국한된 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정된 조사기관이 사립 어린이 집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만큼 연구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지역과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H. 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2010.
- [2] Y. J. Choi, Development of a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 Based on Seligman's Character Strengths,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unkwan University, Ph.D. thesis, 2009.
- [3] Y. E. Jeong, "Development of a Happiness Promoting Program based on Principles of Positive Psychology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Focusing on Subjective Contentment",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8, No.2, pp. 55-62, 2008.
- [4] Spodek, B., Saracho, O.N., & Davis, M.D.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9.
- [5] E. M. Koo, An Analysis of Teacher 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Program.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thesis, 2004.
- [6] K. S. Lee, Exploring variabl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Ph.D. thesis, 2000.
- [7] K. A.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ir job

- related variables : Based o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role performing ability, turnover intenti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Ph.D. thesis, 2010.
- [8] M. S. Kim, Y. S. Han,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Vol.7, No.2, pp. 1-38, 2006.
- [9] U. C. Kim, Y. S.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9, No.4, pp. 973-1002, 2004.
- [10] K. S. Park, D. W. Hahn, J. I. Lee, "Social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1, No.3, pp. 457-475. 2006.
- [11] M. S. Suk, "Ecological-Systematic Approach to subjective Well-being of the aged at local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26, No.-, pp. 237-261, 2004.
- [12] J. Y. Lim, G. Y. Jeon, "A Study of Variables Influencing Subjective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4, No.1, pp. 71-87, 2004.
- [13] S. B. Kim, Study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based on Ecological Family Variable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nshin University, Ph.D. thesis, 2011.
- [14] A report of research KR; 2011-10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1.
- [15] M. J. Kim, B. M. Kim, "Narrative Inquir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in the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1, No.2, pp. 29-55, 2012.
- [16] S. H. Bae,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 on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22, No.-, pp. 25-44, 2009.
- [17] K. M. Lee, "Ideas for implementing pursuit of happiness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8, No.1, pp. 165-181, 2009.
- [18] Y. J. Choi, K. M. Le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ducators in early childhood",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2, No.1, pp. 395-416, 2012.
- [19] S. S. Kim,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stress coping style and ego-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3, pp. 65-83, 2012.
- [20] G. J. Yoon, "The Effects of Goals,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 No.3, pp. 113-131, 2012.
- [21] H. J. Suh, M. Y. Byun, "A Narrative Approach to Helping an Early Childhood Children Teacher Achieve Greater Happiness in their Class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3, No.3, pp. 149-175, 2012.
- [22] K. M. Lee, Y. J. Choi, K. A. Le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role perform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2, No.6, pp. 509-523, 2012.
- [23] S. Y. Heo,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thesis, 2009.
- [24]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25] S. H. Park, An Analysis of Microsystem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aily Hassles, Dep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thesis, 2002.
- [26] Ryff, C.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7, pp. 1069-1081. 1989.
- [27] Argyle, M. The psychology of happiness. translation : D. K. Kim, Seoul : HAKJISA. 2005.
- [28] Y. S. Park, U. C. Kim,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12, No.1, pp. 161-195, 2006.
- [29] Veenhoven, R. Is a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pp. 1-34. 1991.
- [30] S. H. Yoon, (The)relationship of teachers' psychological well-bi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Kyungsoong University, Phd. thesis, 2007
- [31] Cheung, K.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commitment, and performance: a group leve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pp. 199-206. 1997.

저자소개

이 순 미(Soon-Mi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7년 3월 ~ 2010년 2월 : 제주한라대학 겸임전임강사
- 2017년 4월~현재 : 전주기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 학교폭력예방, 다문화 교육